

초대석 - '한국미술 아키비스트'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관장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

‘한국미술 아키비스트’, ‘걸어다니는 미술백과사전’ 김달진(69)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관장의 인생을 규정하는 키워드는 ‘수집’과 ‘공유’이다. 명화 수집을 좋아하던 소년은 한국 근·현대미술 자료 수집과 기록에 평생을 바쳤다. 그리고 사적 수집에 그치지 않고 공적 공유로 확장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다. 지난 2016년 5월 유인문화재단·중앙일보 주관의 ‘홍진기 창조인상’을 수상할 때 ‘한국인의 DNA에 새겨있는 기록의 역사를 빅데이터 시대에 새롭게 구현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물방울이 떨어져 돌을 뚫는다’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표상인 그의 인생을 조명한 ‘김달진, 한국미술 아키비스트’(김재희 저음)가 최근 출간됐다.

◇작가 335명 미술자료 스크랩한 ‘D폴더’=“매년 2~3차례 한국미술의 주요 흐름을 아카이브의 맥락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장소가 좁아서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결과물에 대한 단행본을 내는 것에 치중을 해요. 이번에도 윤진섭(미술평론)·강성원(비평미학) 선생님이 논문을 썼고 300쪽짜리 국·영문 책을 만들어냈죠.”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에 자리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최근 1층 전시실에서 ‘한국전위미술사: 영원한 탈주를 꿈꾸다’ 전(2023년 10월 30~3월 22일)을 개최했다. 한국최초의 미술잡지 ‘서화협회 회보’ 창간호(1921년)와 각종 팸플릿, 초청장, 신문기사, 잡지, 기념사진 등 김달진 관장이 직접 수집한 관련 오리지널 미술자료들을 통해 한국전위미술의 지난 역사를 오롯이 보여주었다.

최근 출간된 ‘김달진, 한국미술 아키비스트’(벗나래 펴) 저자는 미술해설가이자 국립현대미술관 도슨트인 김재희 씨로, 장성출신 우호(又湖) 김영중(1926~2005) 조각가의 딸이다. 평생 동안 미술 자료를 우직하게 수집해온 한 ‘아키비스트’(Archivist)·기록물 보존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외길 인생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2층 관장실 두 개 벽면에는 한국작가 335명의 스크랩본인 ‘D폴더’가 가지런하게 꽂혀 있다. ‘D폴더’의 D는 ‘Daljin’과 ‘Data’, ‘Document’(문서)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전위미술전에서 보듯 사라져가는 미술자료들을 수집·정리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무척 중요함을 일깨웁니다. 이번 신간에서 ‘한국미술 아키비스트’(Archivist)로 소개됐습니다

‘아키비스트는 ‘Archive’(아카이브)+‘ist’(하는 사람)가 합쳐진 말로, 기록물 보존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사전’에도 등재됐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미술자료를 가지고 자료정리를 하는 거죠. 저로 인해 새로운 미술연표가 정리된 것입니다. 이게 안락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소스가 되는 거죠. 이것을 처음으로 정리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오기(謬記)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이 수정·보완하면 됩니다.”(김달진 관장은 2013년 금성출판사에서 펴내는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 ‘직업속 가치탐구’ 코너에 ‘아키비스트’로 소개됐다. 그는 미술자료 수집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자료 하나하나를 우리 현대미술의 역사자료가 되도록 노력했어요. 미술평론가나 미술사가와 다

인생 규정 키워드는 ‘수집과 공유’ 기록물 보존을 담당하는 전문가 부실했던 미술사 맥락 튼튼히 다져 유튜브 채널 통해 자료 아카이빙 ‘미술자료 도서관’ 만드는 게 목표



◀ 2016년 5월 ‘홍진기 창조인상’을 수상한 후 홍성현 중앙일보 회장과 김달진 관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왼쪽부터).



한국 근·현대미술 자료 수집과 기록에 평생을 바쳐온 ‘아키비스트’(Archivist)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관장.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을 합성한 복합문화 공간을 말한다. 그 라키비움의 선구자 김달진은 취미를 직업으로 만든 사람이다.”(유홍준 미술평론가)

독자들은 신간 ‘김달진, 한국미술 아키비스트’에 실린 두 명사의 추천사만으로도 김달진 관장의 인생행로와 정체성을 대략이나마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리라. 저자는 김달진 관장의 ‘생의 방향을 결정지은 세 가지 일’로 ▲10권짜리 ‘서양미술전집’ 스크랩 ▲고교 3학년(1972년)때 ‘한국 근·현대미술 60년 전’ 관람 ▲이경성(1919~2009) 미술평론가(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와의 만남을 꼽는다.

“60년 전’에 나온 많은 작가들 가운데 유명작가 몇 명 말고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미술사에 중요한 작가인데도 의외로 없어서, 내가 (근·현대미술자료들) 모아 정리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1972년 경북공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근·현대미술 60년 전’ (6월 27~7월 26일)은 김 관장의 인생을 결정지은 ‘터닝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이경성 미술평론가는 그의 미술자료 수집 취미를 직업으로 만들어준 은인이자 멘토였다. 1981년 9월 23일, 그는 미술자료 수집 담당 임시직(일당 4500원)으로 채용돼 국립현대미술관에 첫 출근을 했다. 금요일마다 어김없이 인사동 등지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가방과 쇼핑백 가득 전시 도록과 팸플릿을 챙기는 그에게 ‘금요일의 사나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유튜브 ‘DJ MUSE’로 소통하는 ‘흰머리 청년’=김달진 관장이 자신의 이름을 붙인 ‘김달진미술연구소’를 개소한 때는 2001년 12월. 이어 2002년 9월에 미술정보 포털인 ‘달진닷컴’(daljin.com)을 오픈했고, 2008년 3월에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서울시 2층 전문박물관(제81호)으로 등록했다. 현재의 박물관 건물은 종로구 평창동 1동의 동·창성동-파파구 창전동에 이은 5번째 공간이다. 현재 박물관은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을 합성한 복합문화 공간, ‘라키비움’ 역할을 톡톡히 한다.

고희(古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김 관장은 청년시절처럼 여전히 ‘휴일 없이 밤낮 없이’ 일한다. 새벽 5시계 기상해 새벽기도를 올리고 헬스장에 다녀온 후 신문 14종의 스크랩을 체크한다. 화제의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을 합성한 복합문화 공간을 말한다. 그 라키비움의 선구자 김달진은 취미를 직업으로 만든 사람이다.”(유홍준 미술평론가)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에 자리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전시장을 돌아본 후 박물관에서 밤늦은 시각까지 유튜브 ‘DJ MUSE’에 올릴 영상을 제작한다. 현재 구독자 3540명에, 동영상 3000 개가 업로드됐다. 김 관장의 꿈은 방대한 소장 자료를 디지털 DB화해 ‘미술자료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다. 50여 년을 지속해온 그의 한국 근·현대 미술 아카이빙은 현재 진행형이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직원이 10명이 넘는데 지난해 보다 ‘월간 서울 아트가이드’ 광고수익은 떨어지니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출간기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매일 어떤 자괴감과 회의감에 싸운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처음에는 취미를 가지고 미술자료를 수집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제가 꼭 해야 하는 사명감이 됐죠. 한국 근·현대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가 된다’를 제 나름대로 좌우명을 삼았습니다. 제 일은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고 죽어야 끝나는 거죠.”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국립현대미술관 시절, 김주경의 ‘복악산을 배경으로 한 풍경’(1927년 작)과 함께 한 김 관장.(1982년)



김달진 관장의 은인이자 멘토인 이경성(왼쪽·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미술평론가.(2002년) <김달진 제공>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파묘
- 2관 파묘
- 3관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 4관 땃글부대
- 5관 오맨: 저주의 시작,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
- 6관 땃글부대
- 9관 고질라 X 콩: 뉴 엠파이어, 마더스
- 7관씨네커피 비키퍼, 남은 인생 10년, 둔: 파트2
- 8관씨네커피 썬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4월)
일시 : 2024-04-06(토) ~ 2024-04-28(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안승민 개인전 <점-존재>
일시 : 2024-03-29(금) ~ 2024-04-28(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